

현대패션의 모자 디자인에 나타난 레트로 경향

김 은 실 · 배 수 정[†]
전남대학교 의류학과

A Study on Retro Fashion in Hat Design

Eun-Sil Kim · Soo-Jeong Bae[†]

Dept. of Clothing & Textile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2006. 1. 11. 접수 : 2006. 11. 29. 채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ere to study Retro-hat design. To do these purposees, the focus of theoretical approach was literature research, and hat design was attempted on the basis of the research. The focus of theoretical background was on previous research and fashion-related literature.

Photo materials to analyze retro-hat design is Haute-Couture collection in paris from the 1990's to 2004 and some designer's collections. Then Retro hat design is 85 in 1,381 hat photos.

The results obtained through this process were as follows.

In the hats of Retro, the past style such as an Egyptian wig, a snake-shaped hat in Crete, a Medieval knight hat, Liripipe, Tricorn hat, or Bicorn hat was reinterpreted and expressed. Since 2003, Retro characteristics has become strong and frequent.

By designing a hat on the basis of the direction of hat design, this study intended to find out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hat design.

Key words: retro-hat design(레트로 경향의 모자 디자인), wig(가발), liripipe(릴리파이프), tricorn hat(삼각모), bicorn-hat(이각모).

I. 서 론

최근 레트로(retro)가 사회를 지배하는 새로운 현상으로 떠오르면서,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소니에릭슨은 소니와의 협력하에 과거의 워크맨을 휴대폰에 접목시켜 '워크맨 폰 1호'를 출시함으로써 과거 79년 출시되었던 워크맨의 인기를 되살리고 있다. 또한 2001년 9월에 개최되었던 제59회 프랑

크푸르트 모터쇼에서는 세계적인 흐름으로 자리 잡은 '복고풍 디자인과 신기술의 결합'을 통해 승용차와 미니밴을 결합시킨 자동차를 선보였고, 이러한 흐름은 국내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1989년 당시 당대의 홍콩의 최고의 배우였던 주윤발이 광고 모델로 등장해 "사랑해요 ○○○"라는 카피와 함께 일약 음료시장의 히트 상품으로 떠올랐던 탄산 음료도 새로운 모습으로 소비자에게 다가왔다.

이렇듯 레트로 경향은 사회 전반에서 다루어지는

[†]이 논문은 2005년 전남대학교 학술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교신저자 E-mail : sjbae63@daum.net

새로운 움직임으로 이러한 현상은 패션에서도 예외가 될 수 없었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과거의 스타일이 다시 부활되면서 '레트로(Retro)'라는 새로운 트렌드가 산업 전반에 새로운 기류로 형성되고 있다.

레트로(Retro)란, '레트로그레시브(Retrogressive)'의 축약된 용어로, 이전 시대 특유의 스타일로 역행하는 복고적 모드를 말한다¹⁾. 이는 지나간 시대를 그리워하며, 오늘을 사는 사람들의 기호에 맞게 재수정하는 것을 가리킨다. 즉,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과거에 대한 향수로 이어지는 현상으로 보여진다. 이는 과거의 것에서 영감을 빌려오고 현재의 분위기에 맞게 재창조하는 작업인 것이다.

이러한 레트로 현상은 패션에서도 예외가 될 수 없었다.

이는 많은 디자이너들에게 패션 디자인의 영감이 되었고, 의복뿐만 아니라 의복을 보완해 주는 모자에 있어서도 디자인의 원천이 되었다. 이러한 예로서, 최근 2003 S/S 컬렉션에서는 디올사에 의해 이집트 가발의 형태를 비즈로 제작한 작품이 선보였으며, 2004 S/S 컬렉션에서는 이집트 의복과 함께 투탕카멘의 관의 형태를 그대로 재현한 작품을 선보임으로써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이렇듯 '과거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레트로 현상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20세기 말부터 계속되어오고 있는 현상이며, 이는 패션에서도 많은 영향을 미쳐 '레트로 패션'은 아직도 식을 줄 모르는 일시적 현상이 아닌 패션의 한 양식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특히 현대패션에서 모자는 토탈 코디네이션 개념으로 강조되면서 의복과 함께 완성된 통일감을 연출하는 중요한 아이템으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²⁾이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고대부터 근대까지 모자의 종류를 살펴보고, 1990년대 이후 현재(2006F/W)까지의 패션에 나타난 레트로적 경향을 「Mode et Mode」, 「Collections」, 「Gap Collection」 등 각종 잡지를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레트로 현상이 모자 디자인에

얼마나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를 재정립하고, 앞으로의 모자 디자인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때 20세기 이후의 모자 디자인은 다양한 스타일이 공존한 시기이므로, 고대부터 근대까지 정형화된 모자 스타일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연구 범위를 고대부터 근대까지의 스타일이 20세기 후반부터 현재까지 레트로화된 현상만을 다루고자 한다.

또한 본 고에서 사용한 모자라는 용어는 머리를 장식한 모든 것을 총칭하는 용어로, 머리를 두르는 베일이나 스카프, 가발 까지도 포함한 광의의 의미로 정의하고자 한다.

II. 모자의 종류 및 변천

모자는 세기의 패션 액세서리이다. 이는 모자가 어떤 이미지를 향상시키거나 파괴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³⁾. 과거 모자는 권력이나 힘을 나타내기도 하고, 지위, 소속, 사상적 특성과 계급을 상징하기도 하였으며, 사회적 사건을 반영하기도 하였다⁴⁾. 특히 고대부터 근대까지는 모자가 필수적으로 착용되었던 시기였으나, 20세기에 들어와 패션이 개성화, 다양화되면서 모자의 형태 또한 다양화되었다.

고대 이집트 시대에 대표적인 모자로는 클래프트(klaff), 가발(wig), 관 등이 있었다. 클래프트는 이집트의 대표적인 머리쓰개로 내모난 모양으로 이마에 꼭 맞고 귀 뒤에서 접혀져 떨어지는 형태의 두건으로 형태는 단순하지만 스트라이프(stripe)무늬로 화려하게 장식되었다. 또한 클래프트는 태양의 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기능적 목적으로 관자들이에 고정시켰으며, 귀를 가리거나 드러내며 착용되었다⁴⁾.

가발은 종교적인 의식과 기후 조건, 위생적인 목적으로 머리를 짧게 깎는 것을 생활화한 이집트인들이 직사광선을 피하기 위해 사용한 대표적인 머리쓰개로서, 남자들은 주로 종교적인 의례를 위해 쓰여졌으며, 여자들은 금으로 된 밴드나 링, 색깔 있는 유

1) 금기숙 외 9인, *패션큰사전*, (서울: 교문사, 1999), p. 133.

2) Hopkins, Susie, *The Century of Hats: Headturning Style of the Twentieth Century*, (London: Aurum, 1999), p. 7.

3) *Ibid.*, p. 7.

4) Browyn Cosgrave, *Costume & Fashion*, (Checkmark Books, 2000), p. 29.

리와 보석처럼 화려하게 장식된 액세서리로 장식한 가발을 착용하였다⁵⁾. 이 외에도 관이 있었는데, 이는 왕이나 여왕에 의해 쓰여진 형태로 상징성이 강한 것이었다.

고대 크리트 시대에는 대표적으로 거대한 뿔 모양의 페타소파(Petasofa)와 터번(Turban), 티아라(Tiara), 토크(Toque), 붓꽃관, 베레모(Beret) 등이 있었다. 또한 크리트의 뺨의 여신상에서 보여준 뺨은 상징성이 강한 이미지로 등장하였다.

그리스·로마 시대에는 페타소스(Petasos), 필로스(Pilos), 톨리아(Tolia), 프리지안 보넷(Phrygian bonnet), 스테판(Stephan), 베일(Veil), 월계관 등이 있었다. 페타소스는 여성들이 많이 착용한 모자로 밑질로 만들어졌고 매우 넓은 챙을 가지고 있었으며, 챙을 올리거나 내릴 수 있었고, 그 형태와 높이는 다양했던 모자였다⁶⁾. 또한 가죽이나 울로 만든 프리지안 보넷은 꼭대기가 둥근 후드 모양으로 여성용에는 수를 놓는 수식이 가해지기도 하였다⁷⁾.

비잔틴 제국 시대에는 7세기에서 9세기 이후에 왕족들이 착용한 왕관이 있었는데, 이것은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황후들의 왕관은 타이어형의 롤로 된 터번 모양으로 금이나 진주, 보석 등으로 화려하게 장식한 밴드가 덧붙여졌다⁸⁾. 비잔틴 시대에서는 머리 형태의 변화를 추구하기 보다는 머리를 장식하는, 즉 머리 장식에 많은 장식들이 이용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실크나 진주를 이용한 화려한 망의 형태를 이루었으며 이러한 스타일은 후에 중세 유럽에서도 많이 사용되었다.

중세 전기 즉 5세기에서 12세기에는 워플(Wimple)이 일반 부인들에게 착용된 베일로, 이것은 소녀나 미망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었으며, 외출시나 종교적 행사가 있을 때 필요하였다⁹⁾. 또한 고켓(Goget) 또한 목, 턱, 귀까지 감싼 형태로 베일과 함께 착용되었으며, 워플과 고켓은 현대의 카톨릭 수녀의 두식에서 그 영향을 찾아볼 수 있다.

중세 말기 즉 13세기에서 15세기 중엽에는 고딕 양식이 형성된 시기로서, 13세기에는 베일이나 워플로 머리카락을 감추는 스타일이 유행했으며, 14세기에는 사치스럽고 호화로운 머리 장식이 유행되어 워플, 고켓, 베일, 토크, 샤프롱(Chaperon) 등이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또한 이 시기에는 도우넛 형태의 터번이 등장했는데, 이것을 라운드 릿(Roundlet)이라고 하였다. 15세기에는 가늘고 높이를 강조한 고딕풍 복식의 아름다움이 절정에 이른 시기로 이때 에닝(Hennin)이 등장하였다. 이것은 딱딱한 천으로 원추형의 모자를 만들고, 그 위에 원형의 베일을 덮어 길게 늘어뜨린 것으로 15세기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모자이다. 에닝은 역사적으로 그 모양이 기괴하고 실용성도 없는 대표적인 것으로 분류된다. 이 외에도 바르베(Barbe), 릴리파이프(Lilipipe), 슈가로프 햇(Sugar loaf hat) 등이 있었다.

근세 르네상스 시대에는 발조(Balzo), 게이블 후드(Gable hood), 에스코피옹(Escoffion) 등이 유행된 시기로서, 발조는 머리 전체를 감싸고 목을 강조한 둥근 모양의 토크이며, 게이블 후드는 앞 중심에 철사를 넣어 얼굴을 각지게 하고 뺨을 덮는 형태이며, 에스코피옹은 머리 위 양쪽에 가벼운 천으로 풀을 먹고 철사를 대어 뾰족한 뿔 모양 두 개를 만들고 뿔 끝에 비단이나 얇은 사로 된 베일을 달아 뒤로 늘어뜨리는 형태를 말한다. 이 외에도 베일이나 프렌치 후드(French hood), 바레트, 샤프롱, 토크 등이 있으며, 베일은 장식적인 의미로 색채나 장식에 있어 다양함을 볼 수 있다.

바로크 시대에는 영국에서 소개된 트리콘(Tricorn)이 유럽 전체에 유행하게 되었다. 트리콘은 중산층에까지 널리 애용되어 18세기에는 남성의 대표적인 모자로 부각되기도 하였다. 초기에는 여성 모자로 스튜어트 캡(Stuart cap)과 프렌치 후드(French hood)가 전 시대에 이어 여전히 유행하였으며, 중반에는 남성용의 슈가로프 햇이 유행하였다¹⁰⁾. 또한 리본을

5) *Ibid.*, p. 29.

6) Browyn Cosgrave, *Op. cit.*, p. 52.

7) *Ibid.*, p. 52.

8) Francois Baudot, *20,000 Years of Fashion*, (New York: Abrams, 1987).

9) Browyn Cosgrave, *Op. cit.*, p. 51.

10) Colin McDowell, *Hats: Status, Style and Glamour*, (Thames & Hudson, 1989), p. 219.

이용하여 층층이 올린 형태의 풍뎡쥬(Fontange)라 불리는 우아한 머리 장식이 등장했다. 이후 프랑스 혁명을 분기점으로 하여 트리콘의 유행은 점차 쇠퇴하고 대신 바이콘(Bicorn)이 등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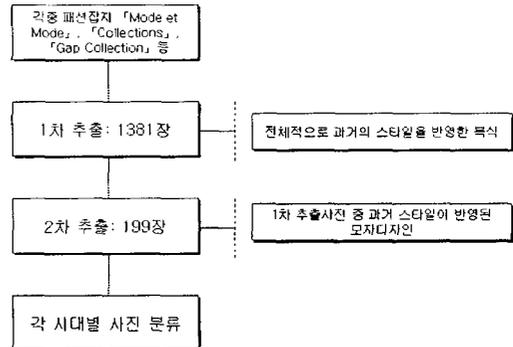
로코코 시대에는 남성용으로 트리콘이나 바이콘이 유행하였고, 여성용으로 린넨이나 실크를 주름잡아 포장마차처럼 만든 보넷형의 칼라쉬(Calash)라 불리는 커다란 후드와 같은 스타일이 유행하였다. 이외에도 카휠(Carwheel), 샤뵘(Chapeau)와 같은 스타일도 등장하였다.

근대로 들어오면서, 역사상 중산층이 유행을 주도한 19세기에는 남성 신사복과 함께 탑 햇(Top hat)이 유행을 주도하였다. 탑 햇은 펠트를 주 소재로 사용했으며, 형태는 둥근 크라운과 높은 옆면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다양한 용도로 착용 가능하여 남성들의 대표적인 모자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탑 햇과 같은 뜻의 뒤를 이은 모자로 보울러(Bowler), 콕 햇(Coke hat), 더비(Derby)가 있었다. 이 외에도 남성 모자로 크라운이 높은 실크 햇(Silk hat), 브림의 양쪽이 올라간 임페라트리스(Imperatrix) 등이 있었다. 또한 여성 모자의 유행 흐름은 매우 빠른 변화를 보이고 있었으나 그 변화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었다. 특히 꽃 모양이나 깃털 등 장식에 치중한 샤뵘(Chapeau)라는 모자가 등장하기도 하였다.

이상과 같이 고대부터 근대까지의 다양한 형태의 모자를 시대별로 정리하여 <표 1>에 제시하였다.

III. 현대패션에 나타난 모자 디자인의 레트로 현상

각각의 시대별 스타일이 현대패션에 어떻게 응용되어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각종 패션 잡지 『Mode et Mode』, 『Collections』, 『Elle』, 『Gap Collections』 등을 중심으로 1990년부터 2006 F/W까지 과거의 스타일이 응용된 사진 중 1,381장 중 과거 모자 디자인이 응용된 199장을 추출한 다음, 이를 각 시대별(고대, 중세, 근세, 근대)로 분류하여 어떻게 응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과정을 <그림 1>에 제시하였다.



<그림 1> 사진추출 프로세스.

각각의 시대별 스타일을 중심으로, 현대패션에 나타난 레트로 현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고대 스타일

고대 스타일의 모자가 재해석되는 경우로서, 이집트의 가발, 플라프트, 투탕카멘의 관의 현대나 크리트의 뱀을 응용한 모자, 그리스의 월계관 등이 나타나고 있다.

<그림 3>에서는 이집트 시대의 가발을 응용한 것으로, 비즈로 가발 형태를 재해석한 작품이다. 또한 <그림 5>는 다오르 사의 2004 S/S 작품으로 투탕카멘의 관의 형태를 그대로 재현한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정교하게 재해석된 작품이다. <그림 6>은 크리트의 뱀의 여신상이고, 이는 <그림 7>에서 발렌티노에 의해 뱀의 형상으로 머리에 착용되고 있다. 이외에도 <그림 9>에서 처럼, 그리스의 월계관을 변형시켜 얼굴에 부착시킨 새로운 형태의 모자도 선보이고 있다.

2. 중세 스타일

중세의 모자가 재해석되는 경우로, 중세 전기의 릴리파이프 후드(Lilipipe hood)나 윈플(Wimple), 중세 말기의 베일(Veil), 슈가로프 햇(Sugarloaf hat), 기사도 모자 등이 나타나고 있다. <그림 10>은 중세의 윈플로 얼굴이나 목, 머리를 감싸는 형태로 피에르 발맹에 의해 재현되었다(그림 11). <그림 13>은 지방사의 1997년 작품으로 중세 기사도의 모자 <그림 12>를 착용함으로써 의복과 함께 복고적인 느낌을 주고 있다.

〈표 1〉 시대별 모자의 종류 및 형태

시 대	모자의 종류	형 태	그 림
이집트	가발 (Wig)	단순하고 기하학적 삼각형과 유사한 형태	
	클래프트 (Klaff)	네모난 모양으로 이마에 꼭 맞고 귀 뒤에서 접혀져 떨어지는 형태의 두건	
크리트	페타소파 (Petasofa)	거대한 뿔모양	
	기타	터번, 티아라, 토크, 붓꽃관, 배례모	
고대	페타소스 (Petasos)	위·아래로 말린 형태의 넓은 브림과 낮은 크라운	
	필로스 (Pilos)	좁은 브림이 있거나 없는 등글고 끝이 뾰족한 머리에 꼭 맞는 둥근 캡이나 원형 형태	
	톨리아 (Tolia)	브림이 있고 꼭대기에 작은 원추형의 크라운을 가진 형태	
	프리지안 보넷 (Phrygian bonnet)	꼭대기가 둥근 후드 모양	
	스테판 (Stephan)	초승달 모양의 우아한 머리띠	
	기타	배일, 월계관	
비잔틴	왕관 (Crown)	타이어와 같은 몰 위에 부드럽고 둥근 왕관을 얹은 터번 모양	
	기타	페타소스, 망, 두건, 터번, 배일, 프리지안 캡	
중세 중세 전기·말기	윌플 (Wimple)	수녀의 베일로 얼굴 양쪽으로 목과 가슴까지 덮는 형태	
	고겟 (Gorget)	목, 턱, 귀까지 감싼 형태	
	샤프롱 (Chapron)	머리를 완전히 덮고 목과 어깨까지 감싸는 형태	
	라운드 렛 (Roundlet)	긴 꼬리에 숨을 넣어 만든 둥근 모양의 터번	

<표 1> 계속

시 대	모자의 종류	형 태	그 림
중세	바르베 (Barbe)	얇고와 비슷, 규칙적인 잔주름이나 플리츠가 턱 부분에 풍성한 형태	
	에닝 (Hennin)	딱딱한 천으로 원추형의 모자를 만들고 그 위에 원형의 베일을 덮어 길게 늘어뜨린 형태	
	랄리파이프 (Lilipipe)	후드로 꼬리가 길게 달린 형태	
	기타	베일, 슈가로프 햇(Sugar loaf hat), 토크, 후드	



<그림 2> White kalasiris & sheath dress, 『Costume & Fashion』, p. 20.



<그림 3> Christian Dior (2003 S/S), 『Mode et Mode』.



<그림 4> 네페르티티 왕비의 흉상, 신왕국 18왕조 (B. C 13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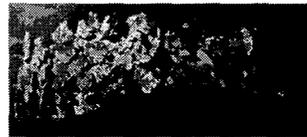
<그림 5> Christian Dior (2004 S/S), 『Mode et Mode』.



<그림 6> 크리트의 벵의 여신상, 『Costume & Fashion』.



<그림 7> Valentino (1998 S/S), 『Mode et Mo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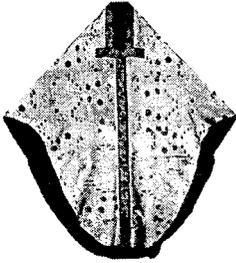
<그림 8> 그리스의 원계관 『http://www.samsungdesign.net』.



<그림 9> Givenchy (2001 S/S), 『Mode et Mode』.

<그림 14>는 중세 시대의 화려한 왕관을 보여주는 그림으로, 이러한 왕관의 형태는 비비안 웨스트우드 에 의해서 유머러스하게 표현되기도 하였다(그림 15).

<그림 16>은 14세기 전형적인 후드 스타일로서, 이 세이 미야케에 의해 플리츠 기법의 소재를 응용하여 입체적인 느낌으로 독특하게 선보이고 있다(그림 17).



〈그림 10〉 12세기의 윙플
「20000 Years of Fashion」
p. 185.



〈그림 11〉 Pierre Balmain
(1990~1991 S/S), 「Mode
et Mode」.



〈그림 12〉 중세의 기사도
와 투구 「http://www.sam-
sungdesign.net」.



〈그림 13〉 Givenchy (1997
S/S), 「Mode et Mode」.



〈그림 14〉 중세
시대의 왕관,
「http://www.sam-
sungdesign.net」.



〈그림 15〉 왕관
을 응용한 비비
안웨스트우드
작품(1986~
1987), 「Hats:
Status, Style and
Glamour」, p. 37.



〈그림 16〉 14세
기 전형적인 후
드, 「20,000
Years of Fashion」,
p. 202.



〈그림 17〉 Issey
Miyake 작품,
「Hats: Status, Style
and Glamour」
p. 133.



〈그림 18〉 14세기
슈가로프 햇
「Hats: Status, Style
and Glamour」
p. 45.



〈그림 19〉 데이비
드 실링의 슈가
로프햇
「Hats: Status, Style
and Glamour」
p. 45.

또한 〈그림 18〉은 마치 설탕덩어리처럼 보인다는 데에서 유래한 슈가로프 햇 (sugar loaf hat)으로, 데이비드 실링에 의해 레이스가 달린 빵 케일 형태의 모자로 익살스럽게 보이는 느낌으로 응용되고 있다 (그림 19).

3. 근세 스타일

근세의 모자가 재해석되는 경우로, 바레트(Baret), 발조(Balzo), 게이블 후드(Gable Hood), 에스코피옹(Escoffion) 등이 다시 등장하고 있는데, 특히 바로크 시대의 바이콘(Bicorn), 로코코 시대의 트리콘(Tricorn), 보넷(Bonnet), 배 형태의 모자 등으로 표현되고 있다. 〈그림 21〉은 18세기의 머리 장식이었던 배 형태를 이용한 작품으로 폴티에에 의해 재해석되고 있는 작품이다. 이러한 배 모양의 장식은 많은 디자이너들에게 재해석되고 있는 예이다. 〈그림 22〉는

18세기 후반 베일을 착용한 모습이며, 이는 〈그림 23〉의 샤넬에 의해 재해석되고 있다.

4. 근대 스타일

근대의 모자가 재해석되는 경우로, 토크, 보넷, 실크 햇(Silk hat), 탑 햇(Top hat), 바이콘 등이 재해석되며 그 중 특히 로맨틱 시대의 탑 햇이 주로 자주 등장하는 스타일이다. 〈그림 24〉는 19세기 나폴레옹에 의해 착용된 이카모로 〈그림 25〉에서처럼 폴티에와 같은 이방가르드한 디자이너들에 의해 니트로 짜여지고 깃털로 장식된 새로운 형태로 재현되고 있다. 이는 형태는 고수하되, 다양한 소재와 기법으로 변형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그림 25〉는 19세기에 유행했던 탑 햇을 응용한 것으로 남성의 권위의 상징이었던 탑 햇이 여성의 머리에 씌워져 더욱더 에로틱함과 여성성이 나타나도록 역설적으로 표현



<그림 20> 18세기의 배 형태의 모자, 「A History of Extraordinary」.



<그림 21> Jean Paul Gaultier (1998 S/S), 「Mode et Mode」.



<그림 22> 18세기 후반의 배일(1794), 「Gallery of Fashion」, p. 144.



<그림 23> Chanel (2001 F/W), 「Gap Collections」.



<그림 24> 19세기의 이카모 (Bicorn hat) (1800), 「Hats」, p. 136.



<그림 25> Jean Paul Gaultier (1992 S/S), 「Hats」.



<그림 26> 19세기 남성 모인 탐햇, 「20,000 Years of Fashion」, p. 3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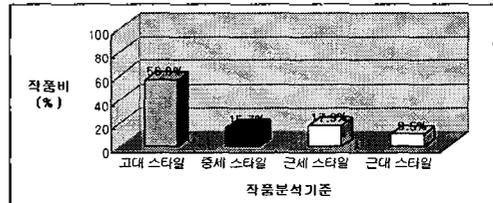


<그림 27> Hermes, 「Mode et Mode」.

되고 있다(그림 26). 특히 딱딱한 모자에 반해 질은 러프티크로 여성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에로틱한 의상으로써 한층 더 에로틱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IV. 패션 잡지에 나타난 레트로 경향의 모자 디자인

본 고에서는 1990년부터 2006년 F/W까지 파리 오트 쿠튀르 컬렉션이 수록된 각종 패션 잡지 「Mode et Mode」, 「Gap Collections」, 「Collections」, 「Book Moda」와 각 디자이너의 작품집에서 모자가 착용된 사진 중 1,381장 중 레트로 경향을 반영한 모자 디자인 95장을 발췌하여 그 경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고대 스타일을 응용한 경우는 54장(56.8%), 중세 스타일을 응용한 경우는 15장(15.7%), 근세 스타일을 응용한 경우는 17장(17.9%), 근대 스타일을 응용한 작품은 9장(9.5%)으로 이중 고대 스타일을 응용한 모자 디자인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 분포율은 <그림 28>과 같다. 이렇듯 고대 스타일의 모자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은 고대 스타일을



<그림 28> 레트로 경향의 모자 디자인 작품 비율.

보면 의복이 단순한 것에 반해 모자나 장식품 등 장식적인 요소들이 발달했기에, 이러한 장식성을 활용한 화려하고 섬세한 스타일들이 현대패션에 특히 많이 응용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표 2>를 통해 년도별 디자인 작품수를 살펴보면, 2003년도에 13.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으로써 복고적인 경향이 최고조에 달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2003년 말 테러에 의해 전 세계가 공포에 떨었고, 그 후에도 지구촌에서는 끊임없는 테러가 발생함으로써, 과거에 대한 향수로 레트로 경향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2003년 이후 현재까지도 이러한 경향은 계속되고 있고, 새로운 세기에 대한 불안함과 지구촌에서 벌어지는 테러, 그

〈표 2〉 시기별 레트로 경향의 모자 디자인 작품 수

(단위: 빈도%)

년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6	합계
작품 수	7	2	3	1	4	3	2	2	3	3	1	4	3	13	11	12	9	12	95

리고 최근 북한의 핵 실험 시도 등에 의한 영향으로 이러한 경향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파악된다.

V. 결 론

본 연구는 고대부터 근대까지 모자의 종류를 살펴보고, 어떠한 스타일의 모자가 현대패션에 어떻게 응용되어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고대 스타일이 응용된 경우로, 이집트의 가발, 클레프트, 투탕카멘의 관의 형태나 크리트의 뿔을 응용한 모자, 그리스의 월계관이 재해석되어 다양한 소재로 고대의 스타일이 재해석되어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중세 스타일이 응용된 경우로, 중세 전기의 릴리피이프 후드, 윙플, 중세말의 베일, 슈가로프햇, 기사모 모자 등이 주로 응용되고 있었으며, 베일이나 후드는 종교적인 느낌으로 패션에 응용되고 있었고, 슈가로프 햇은 유머러스하게, 기사모 등은 그대로 재현되면서 중세의 분위기를 표현하고 있었다.

근세의 스타일이 응용된 경우로, 베일, 바레트, 발쵸, 게이블 후드, 에스코피옹, 바이콘, 트리콘, 베 형태의 모자 등이 자주 등장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스타일은 새롭게 재해석되기 보다는 과거 시대를 재현한 느낌이 더 강했다.

근대 스타일을 응용한 경우로, 토크, 실크햇, 답햇, 바이콘, 깃털 장식이 달린 보닛형 모자 등이 응용되고 있었는데, 바이콘 햇은 의복의 장식과 매치되어 근대품을 잘 표현하고 자주 등장하는 아이템이었으며, 답햇은 다양한 형태로 응용되어 재해석되고 있었다. 특히 브림의 형태가 변형되어 브림이 말아 올려진 정도가 다양했으며, 크라운의 높이도 다양하였다.

이렇게 응용된 스타일이 패션 잡지 모자 디자인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기 위해, 모자가 착용된 사진 총 1,381장 중 레트로 경향을 반영한 모자 디자인 95장을 발췌하여 그 경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대 스타일은 56.8%, 중세 스타일은 15.7%, 근세 스타일은 17.9%, 근대 스타일은 9.5%로 각각 나타났다. 이는 고대 스타일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최근 스타일에 응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고대 스타일이 의복은 단순한 것임에 반해 모자나 장식품 등 장식적인 요소들이 발달했기에, 이러한 장식성을 활용한 화려하고 섬세한 스타일들이 현대 패션에 특히 많이 응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기별로는 2003년에 급상승하여 그 이후 꾸준히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이는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새로운 세기에 대한 불안함과 지구촌에서 벌어지는 테러 등에 의해 사람들이 지나간 과거에 대한 향수 속에서 과거로 돌아가고픈 심경이 패션에도 반영되어 표현된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김경희 (1990). "여성용 모자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희선 (1999). "르네상스 요소를 응용한 현대 의상 디자인." 동덕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혜람 (2000). "로코코 시대 여성복을 응용한 의상 디자인 연구." 홍익대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금기숙 외 7인 (1999). *패션큰사전*. 서울: 교문사.
- 김영임 외 공저 (2001). *현대패션과 악세서리 디자인*. 서울: 교문사.
- 백영자, 임영자 공저 (1994). *서양복식*.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 출판부.
- 블랑쉬 페인 (1997). *복식의 역사(고대 이집트에서 20세기까지)*. 이종남, 안혜준, 김선영, 정명숙 역, 서울: 까치.
- 정홍숙 (1998). *서양복식문화사*. 서울: 교문사.
- Alan Couldridge (1980). *The Hat Book*. New Jersey Prentice-Hall: Englewood Cliffs.
- Browyn Cosgrave (2000). *Costume & Fashion*. Check-

- mark Books.
- Carol Belanger Grafton (2002). *Shoes, Hats and Fashion Accessories-A Pictorial archive (1850- 1940)*.
- Caroline Rennold Milbank. *The Couture Accessory*. New York: Harry N. Abrams, Inc., Publishers, 2002.
- Colin McDowell (2000). *Fashion- The Century of the Designer*. Pcter Feierabend. Konemann.
- Francois Baudot (1996). *Fashion memoir-Chanel*. Thames & Hudson.
- James Laver (2001). *Costume and Fashion-A Concise History*. Thames & Hudson.
- John Peacock (2000). *Fashion Accessories: The Complete 20th Century Sourcebook*. Thames & Hudson.
- Susie Hopkins (1999). *The Century of Hats: Head-turning Style of the Twentieth Century*. London: Aurum.